

청춘의 꿈

나 운 영

중앙고보 졸업할 때의 일이 생각난다. 마라톤 왕 손기정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당당히 우승했다는 보도와 함께 그가 가슴에 단 일장기를 손으로 가리면서 「나는 코리아 사람이다.」라고 외치며 골인하는 사진을 보는 순간 나는 내대로의 「청춘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나도 저 손기정 선수처럼 민족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은 아마 유대인이 아닌가 싶다. 이는 위대한 과학자와 예술가 중에 유대 계통의 사람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증명이 된다. 유대인 못지않게 우리 민족도 개개인이 우수하긴 하나 뭉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흠이기 때문에 그만 나라마저 빼앗긴 것이 아니었던가?

나는 장차 교향곡을 쓰는 작곡가가 되는 것이 그때의 소원이어서 작곡을 전공했는데 지난 4월 미국에 가서 드디어 나의 「교향곡 제13번」을 지휘, 초연하고 돌아오긴 했으나 이로써 청춘의 꿈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니 예술이란 힘든 것이며, 더욱이 민족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통감하게 된다.

학생 여러분! 큰 뜻을 품어라! 푸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배우고 힘쓰라!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리하여 나와 내 나라와 내 민족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1975. 1. 월간 학원>

[부록] 삼무^{三無}

삼다^{三多}의 고장인 제주도를 말할 때 으레 삼무가 머리에 떠오른다. 즉 도둑이 없고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제주공항에 내려 시내로 들어가려면 첫째로 관광객의 눈에 띄는 것은 「교도소 입구」라는 팻말이다. 도둑이 없다면 교도소가 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도둑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인가보다. 둘째로 도둑이 있는데 거지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도둑은 그래도 「일하고 먹는 기술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남들이 모두 곤히 잠자는 틈을 타서 부지런하게도 남의 재산을 관리(?)하러 다니기 때문이다. 물론 도둑과 거지를 똑같이 다뤄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거지가 있는 곳에 도둑도 있게 마련이 아닐까? 셋째로 도둑과 거지가 있는 고장에 대문이 없을 리 있겠는가? 하기가 육지부에서는 교회의 높은 유리창까지도 쇠철망을 씌워 놓았는데 우선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으니 대문이고, 거지고, 도둑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둘까...

나는 7년 전에 제주도에 가보고 내 나름대로 삼다^{三多}는 노래와 비석과 학교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했었는데 요즈음에는 공해가 없고, 야간통금이 없고, 민속악기가 없는 것이 삼무^{三無}가 아닌가 생각된다.

통금이 없는 것은 정신적으로 해방감을 주어 좋으나 육체적으로는 피로가 쌓이기 쉽기 때문에 이해가 반반이라 하겠고, 공해가 없는 것은 생각만 해도 좋지만 민속악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원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민요가 무진장으로 많은 제주도에 악기가 없는 데는 이유가 있다. 즉 제주도 민요는 모두가 노동요이기 때문이다. 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니 악기가 필요 없다. 다만 너무도 흥겨울 때 허벅을 두드려 장단을 칠 정도일 뿐이다.

이같이 악기가 하나도 없는 고장에 민속 음악박물관을 열게 된 것은 그 하나만으로도 의의가 크다 할 수 있겠다.

(1973. 10. 5 한국일보)